

- 우수상 -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의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학 교 (학 과)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학 년	일반대학원 4차
성 명	최윤
E-mail	moca8@hanmail.net
연 락 처	010.6799.8296



강릉단오제의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요 약

본 연구는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역사성과 전통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역사학이나 민속학적 관점이 아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 영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간으로의 접근을 모색한다.

공간개념은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인간의 신체와 삶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언어” 수준에서 시작 되었는데, 그러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와 상징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대에 와서 새로운 공간개념의 근간을 형성해 주고 있다. 시간의 지층만큼이나 오래된 공간의 사유와 인식, 동서양의 철학적 이해는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건축물의 내부의 벽, 천장, 바닥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하는, 다분히 2차원적인 공간 개념이 아닌 종래의 평면성을 넘어 3차원적인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로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을 역사적 의미에 의한 축의 설정과 공간 배치,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굿이 이루어지는 굿당을 상징적인 형태로 평면도출하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뜻 깊게 인식되도록 “상징적인 조형물”을 제시하여 중심부로 설정한다. 또한, “단오타운”을 조성하여 연희공간, 체험공간, 공연공간A, B, 난장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연공간B는 단오문화관으로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항시적인 전시공간과 단오관련 공연공간으로 구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연희공간과 체험공간, 난장과 공연공간A, 공연공간B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개별 공간의 기능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공간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통한 집약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상징적인 조형물은 세월교와 남산교 사이의 수면공간에 설치하여 참여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였으며, 출입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를 두 개(주출입구, 출입구)두어 공간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상징적인 조형물의 형태로는 원, 별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로 화합과 일체감을 가지고 평화로운 양상을 띤다. 원, 곡선은 관중의 참가를 유도하는 형태이며 특히, 중앙모양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공간 뿐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은 그 이용가치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장소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사성과 지역성과의 콘텐츠를 분석하여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통제력을 가지기도하며, 단순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공간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에 “상징적인 조형물”과 “단오타운”의 조성성은 도시의 랜드마크, 강릉단오제의 상징물, 공간배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으로 시대적 부응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강릉단오제 행사공간은 기본적으로 축제기간 5일 동안 연인원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의 소통이 불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음력 5월 5일이면 해마다 23만 강릉시민을 포함한 국내외 관람객 들 약 백 만 여명이 참여하여 의례, 놀이, 난장이 함께 닷새 동안 남대천 강가에서 굿당을 비롯하여 탈놀이 판, 농악장, 시름판, 그네장이 서고 온갖 음식과 생활 용품을 파는 단오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폭이 좁고 길이가 넓어 장방형의 공간형태 때문에 방문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일자형(一字形, 피스톤 형)으로 형성되어 행사 전체에 대한 관람이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축제공간의 구성이나 배치에 있어서 전체 공간 내에서 시각적 혹은 활동적 포인트로 부각시킬 수 있는 중심부의 선정이 어려워 공간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단오제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단오제의 정체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방안으로, 지역의 역사적 의미에 의한 중심축의 설정으로 강릉단오제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통제력을 가지는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변적 장소가 아닌 항시성을 갖는 단오타운 내 전시공간B(단오문화관)는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여 단오문화를 평면적 정태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동태적 항시적인 공간으로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강릉단오제의 주제가 반영되는 공간배치는 강릉단오제의 랜드마크, 공간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간배치를 위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된다.

첫째, 공간배치를 이해하기 위한 근원적인 배경으로 공간의 개념과 공간의 특성을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선정한다.

둘째, 위에서 제시된 공간의 특성을 공간배치 조건의 틀로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강릉단오제 공간배치를 연구하는데 물리적 요소, 의미적 요소, 행태적 요소로 분석하여 공간배치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대상지의 공간체계를 분석하여 도출된 개념을 적용한 최종 배치도를 제시한다.

넷째, 진행된 연구의 모든 과정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공간의 개념과 공간의 특성

1. 공간의 개념

공(空, space)은 “비어있다”는 것이며, 간(間, gap)은 “사이, 틈”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간(空間, space)은 “비어있는 사이 혹은 틈”이라는 뜻이 된다. 사전적으로 그것은 “아무 것도 없이 비어있는 곳”이기도 하며,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빈 곳”이다¹⁾. 또한, 공(空)이란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비어 있으면서 계속 퍼져가는 성질의 것으로, 감촉 할 수도 없는 것인 동시에 꼭 차 있는 물질의 본질적 형식이라 말하기도 하다 간(間)이란 풀이하면 문(間)사이로 햇빛이 비친다는 것이니 속이 빈 사이의 틈을 의미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도량의 개념, 즉 공간에 있어서의 거리를 뜻한다²⁾.

이러한 시각은 특히 동양의 공간개념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데, 노자는 말하기를 “진흙을 성형하여 그릇을 만들면 그 비어있는 공허(空虛)에서 유용성을 찾게 되고, 집에 문과 창을 뚫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용성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존재는 유익성이 있고, 무-존재(無-存在, non-being)는 실용성이 있다”고 하였다³⁾.

공간이란 사전적으로 “비어있음”이지만, 철학적으로는 “비어있음”으로 가득 찬 “비어있음”이 된다. 즉, 공간은 무(無)로서 충만한 상태인 것이다. 공(空)은 없음(無)이 아니라 있음(有)이 되는 것이며, 있음(有)으로 인해 그 쓰임(利)이 생겨나는 것이다.

작품이 설치되기 전의 빈 공간(空間)이 있다. 즉, 없음(無)이다. 여기에 전시를 위한 작품이 설치되며, 작품과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살아난다. 조명을 비롯한 효과가 첨부되고 마지막에 점점이 끝나면 이 공간은 있음(有)의 공간으로 그 쓰임(利)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간을 말함에 있어 공간 그 자체로서 지각될 수가 없고, 오로지 형태의 네가티브(Negative)로서만 인식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간을 충만 시키는 것. 예를 들어 비 또는 물(物)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매개로 하여 감지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인간은 심적 연관을 갖는다고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공간은 그저 비어있는 단순한 공허이거나 무제한적인 용기(容器)가 아니며,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이러한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⁴⁾.

중국의 선승 승조대사(勝肇大師)는 그의 저술 조론(肇論)에서 “물질은 본래 공(空)한 것이며, 과거와 미래가 없고 천류(遷流)하지도 않으며, 동요하지도 않는다.”는 물질론

1) 이기문 감수, 동아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p222, 1990

2)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 국제, p11, 2001

3) Ibid, p11에서재인용 노자 도덕경 제11장의 풀이다.

4) Ibid, p14

을 제시했는데, 그가 말하는 공(空)의 성질은 오히려 형태가 있는 사물의 본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반야심경이 말하는 “색(色)은 공(空)이요, 공(空)은 곧 색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이다. 서양의 공간론은 일찍이 사물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공간을 독립된 대상으로 파악한 반면, 동양의 공간론은 공간과 시간적 형태를 일원론적 이원론으로 보며 시(時)와 공(空)을 상통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⁵⁾.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空間知覺)에 입각하여 공간표상(空間表象)으로서 주어지며, 철학적으로는 그 공간표상에서 출발한 경험적 공간을, 어떤 특별한 요소에 의해서 성격이 부여된 선험적 공간(先驗的 空間)과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지각(空間知覺)은 상하, 좌우, 전후의 공간관계를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지각을 말하는데,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 공간적 범위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공간이 가장 명확하다고 한다⁶⁾.

공간의 쓰임에 있어 공간배치는 인간을 둘러싼 요소들과의 조화를 일치시키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간과 인간은 심적 연관을 맺고 있으며, 결국 여기에서 환경의 개념이 탄생한다고 했다.

랑거(langer)는 예술품의 형식이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예술품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한다. 한 점의 조각품은 개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조상(彫像)은 인식영역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이는 인간과 인간의 창조물로서의 조형물이 가지는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조각은 공간 속에 3차원의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입체라는 사실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각은 그 자체가 3차원적인 연장(延長)을 갖는 동시에 표현대상 또한 입체적 사물이기에 매체의 특성상 “형태, 형상”과 처음부터 맞물려 존재한다⁹⁾. 앞에서 이것을 “형태의 네가티브”라 말했다. 다시 말해, 공간에서 사물의 형상을 형태의 포지티브(Positive)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개의 공간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함이다.

5) Ibid, p13 덧붙여서 저자는 서양의 공간관과 동양의 공간관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자연과학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서양의 공간관이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에 비해, 동양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동양의 공간관이 정체되어서가 아니라, 본디부터 인간과 공간과 사물을 상대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생각했던 점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이영주,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P28, 1996

7)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 대운, p263, 1995

8) Herbert Read, 「the Art of Sculpture」, Princeton Unive Press, p46, 1990

9) 김성호, 「현대구상조각의 한국성 모색에 관한 연구-인체탐구를 중심으로」, 중앙대석사논문, p8, 1998

2. 공간의 특성

“공간디자인 16” 강에서 권 영결은 공간의 특성으로 물리적인 요소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요소들은 장소를 형성하면서 공간에 중심성, 영역성, 방향성의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며, 각 공간의 특성은 참여자의 행태를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그의 3가지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물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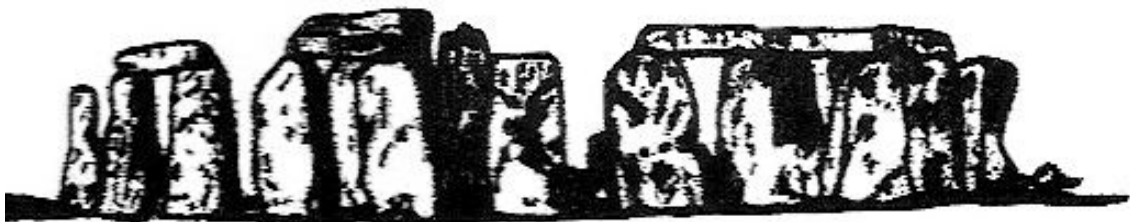
연구자는 공간조형을 위한 요소로 공간의 특성으로 중심성, 방향성, 영역성으로 파악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중심성

공간의 특성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중심이다. 우리가 파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이루는 관계 중 하나의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들이 관계를 포섭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있거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루는 관계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시되는 것이 중심이다.

중심이란, 장소 또는 결절점을 만들어 낸다. 결절점이란 관찰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초점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중점이다.

사람들에게 중심이란, 미지의 알려지지 않은 두려운 환경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정적인 것이다. 외부에 대해 내부로 느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장소의 제한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심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따라서, 장소는 기본적으로 원형이다¹⁰⁾. 건축의 최초 형태인 원시원형주거형태나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를 비롯하여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평면에서 원형의 강한 유심적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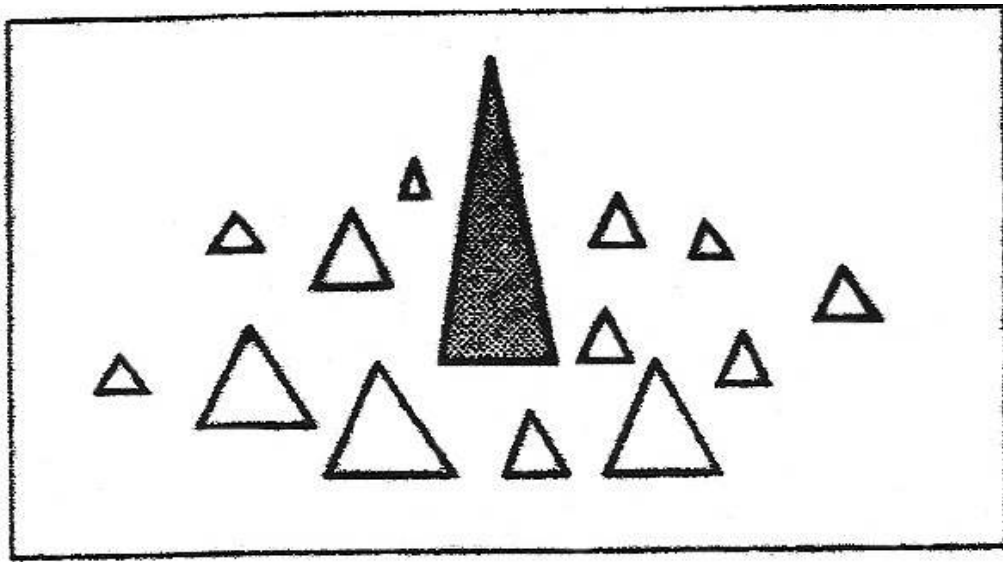


〈그림2-1〉 스톤헨지

10) C.N.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윤재희 역, 세진사, p461, 1984

그러나, 중심의 추구로서의 원형은 반드시 기하학적으로 대칭이거나 동심원적인 형상에 의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적인 중심들의 배치에 있어서도 혹은 불규칙적인 중심들의 배치에 있어서도 원형적 성격이 존재한다. 그 예로는 만달라적 원형성을 실현한 불교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심의 형성과정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한 가지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구심성을 상징하는 배열을 행하는 것이다. 전자를 Kevin Lynch는 랜드마크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랜드마크는 관찰자에게 느껴지는 표준점 중심과 일치하는 수가 많으나 경계나 방향 이상의 것을 지시하는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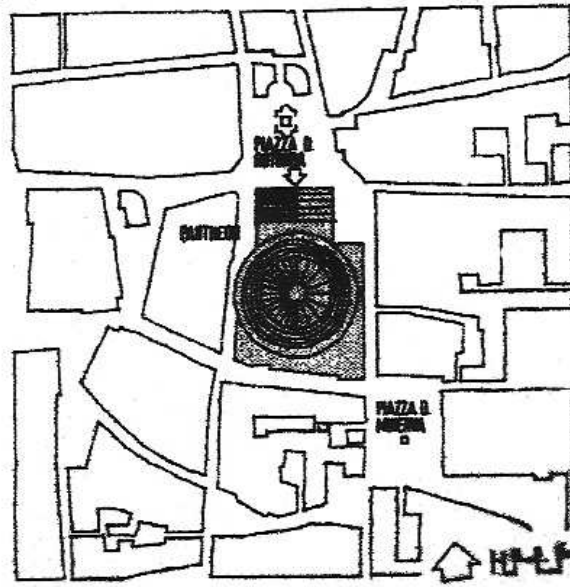


〈그림2-2〉 Kevin Lynch

그리고 구심성은 한정된 연속면과 대칭성, 고립화에 의해 주변에 대하여 높아질 때 강화되며 구형은 최대의 구심성을 갖는다.

이렇게 하여 다양하게 설치된 위계를 지닌 중심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축이 형성된다. 대체로 통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때 통로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그 중심의 도달이라는 최종적인 만족을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¹¹⁾.

11) 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37~40, 1990



〈그림2-3〉 로마의 판테온 배치도
구형에 의한 중심적 형태로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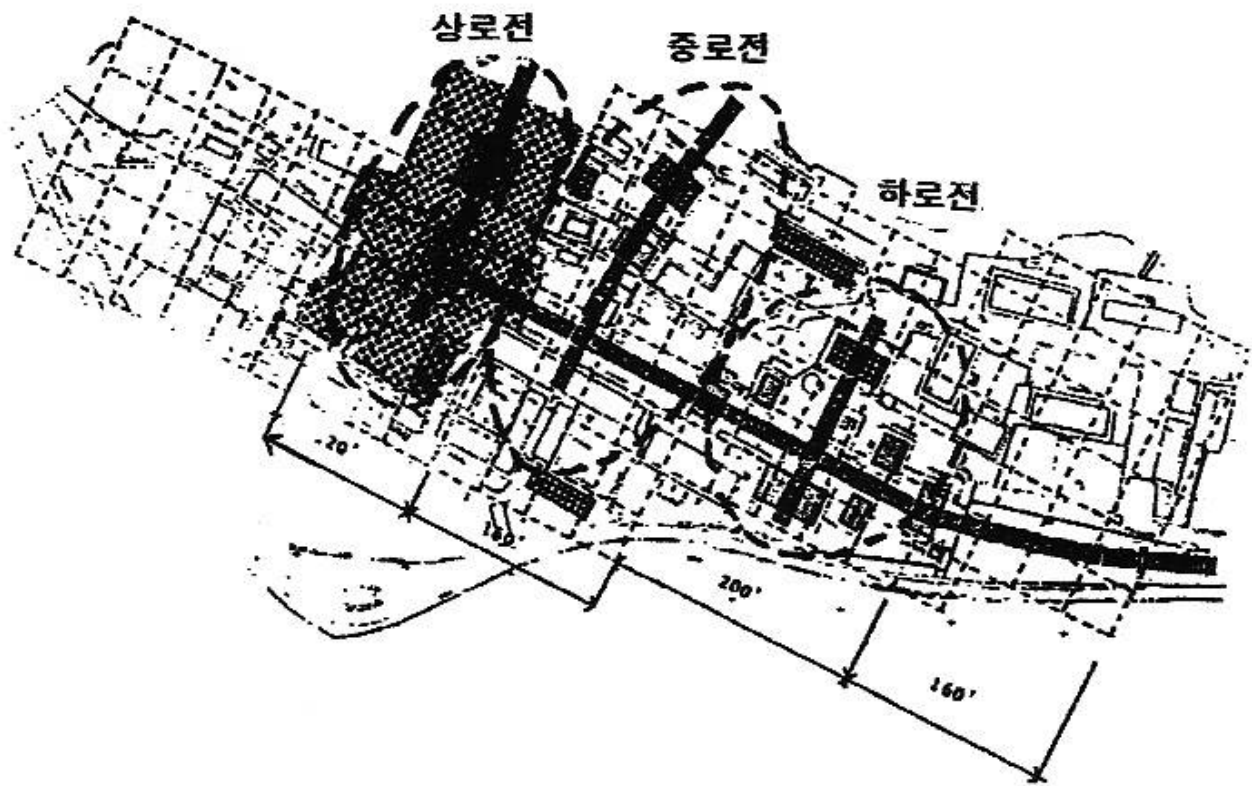
중심에 대한 인간의 욕구로 시대를 초월한 기본적인 성격이다. 안정된 중심으로서의 목표에 의해서만 바로 공간은 안정된 형태로서 조직되어 진다. 공간에서 중심성은 폐합된 물리적 구성요소에 의해 획득되어 진다.



〈그림2-4〉 원형성을 보여주는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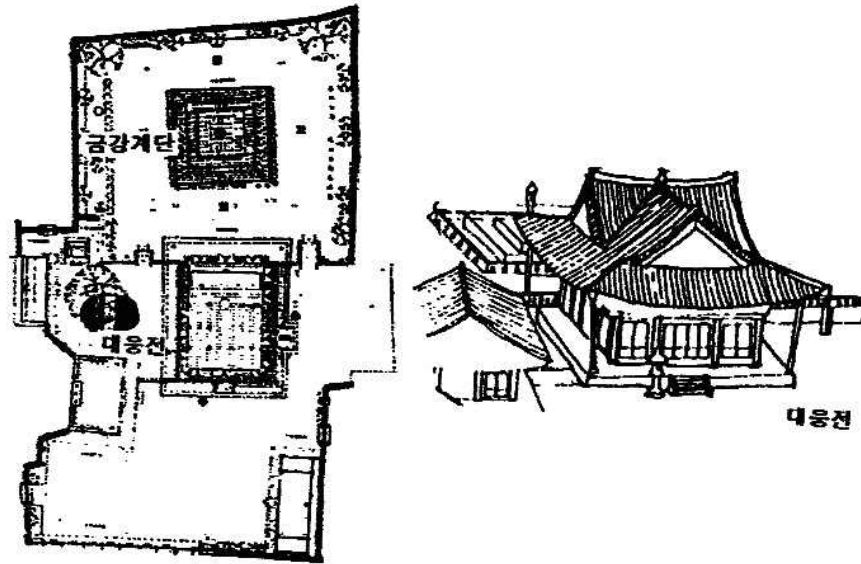
“통도사의 대웅전”은 직선적인 중심에 의한 원형성을 보여 준다. 그림3-5 부분의 전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세계관을 도식화한 “만다라”도형에서, 그 주제와 도형의 방향성, 그리고 8면 대칭성을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불교의 보편적인 우주관을 표현한다. 대웅전의 지붕은 동서남 3면에 합각면을 두어, 3면 모두에 정면성을 없앤 꼴이 되었다.

정면이 없다는 것은 모든 면이 정면이 됨으로써 공간적 중심성 뿐 아니라, 형태적 중심성도 보여 주고 있다¹²⁾.



〈그림2-5〉 통도사의 다양한 중심축

12) 김봉렬, 「불교적 건축이론 :통도사」, 이상건축, p88~93, 1996



〈그림2-6〉 통도사 상로전의 배치도와 대웅전

3면 모두에 정상성을 없앴으로서, 대웅전이 공간적 중심뿐만 아니라, 형태상으로도 중심성을 갖도록 하였다.

2) 방향성

어떤 장소에 중심에 의해 질서가 부여될 때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각 중심의 방향성이다. 모든 장소는 방향을 내포하며, 방향들은 중력 및 방위 등 자연현상에 관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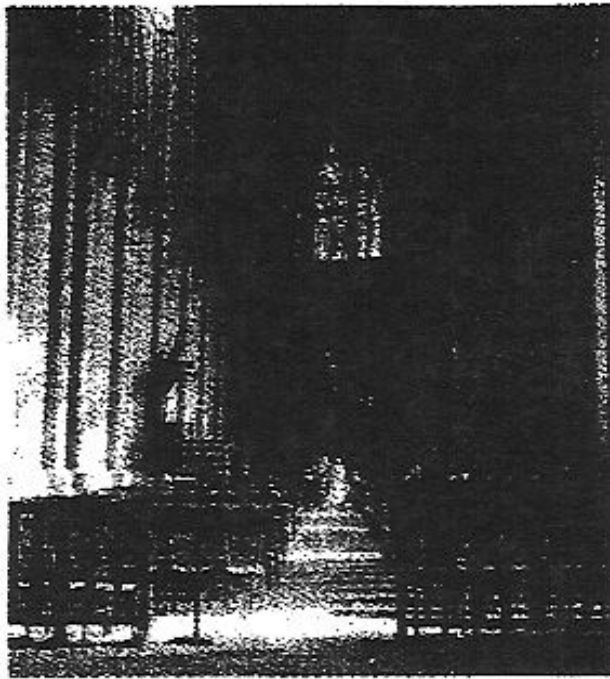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은 수직축을 관통하는 수평축의 만남이다. 수직축은 상승·하강을 나타내며, 성스러움이나 거룩함, 나아가 초월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중력과 맞서는 의미의 수직방향은 자연 정복의 의미일 수도 있으며 인간의 창조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직성이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수평방향은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세계를 나타낸다.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이를 해결하는 통로체계를 만든다.

Kevin Lynch 는 통로(通路)를 “관찰자가 습관적으로 또는 때때로 지나는, 그렇지 않으면 지날 가능성이 있는 경로(經路)”로 정의하고 있다.

통로는 특정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실존적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매우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사람은 통로를 지나면서 수많은 요소들을 통일 시키고 이 요소들은 때때로 더 큰 요소와 관련시켜 하나의 상징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¹³⁾. 이러한 통로는 반드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여러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강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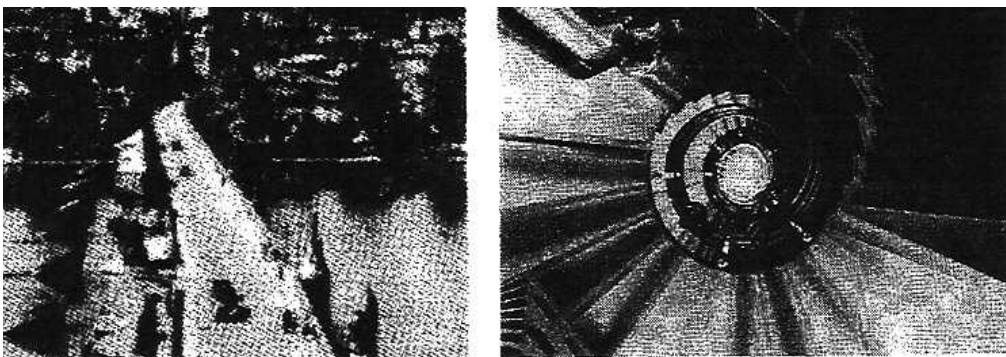
13) C.N.Schulz,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p128~131, 1994



〈사진2-1〉 그리스도교 교회의 통로

그리스도교 교회의 통로는 종말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통로이며 생명의 통로임을 상징한다.

다리는 하나의 특별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영역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통합한다. 다리는 각 공간을 소유 할 수 있게 해주며, 두 개의 영역 사이를 왕복하면서 외부와 내부, 자유로우면서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또 하나의 특별한 통로인 계단은, 하나의 실존적인 단계로부터 또 다른 실존적인 단계로 전이를 구체화 한다. 계단은 중력을 극복한다는 강렬한 표현적인 내용을 갖는다. 특히, 나선형 계단의 수직축을 따라 상승하는 체험 통로는 항상 목표점을 갖는다.



〈사진2-2〉 특별한 통로로서 다리와 나선형 계단

이러한 통로에 의해서 공간을 이동할 때는 위치의 변화와 함께 심리의 변화도 겪으며 공간에서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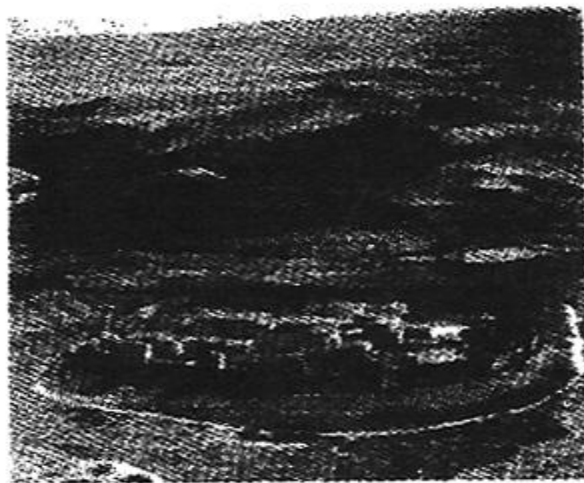
공간의 내부와 외부 각 단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목표 혹은 장소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의 체계는 서로 떨어진 장소를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소성은 방향성이 집중될 때 만들어진다. 축과 방향성은 곧 중심성과 직결되며, 수직의 방향성과 수평의 방향성이 교차될 때 기능적, 심리적 중심이 된다¹⁴⁾.

(3) 영역성

영역은 인간에게 있어 귀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외부와의 사회 작용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심성이 결여되면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다¹⁵⁾.

모든 장소는 중심들이 발휘하는 장적 성격에 의하여 그 영역이 결정된다. 이러한 장적 성격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확정짓기 위해 가시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사진2-3〉 위요된 공간

경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남에게 우리 장소가 어디이며, 얼마나 크며,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려 준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에워싼다(enclose)’ 라고 말한다.

14) 류호창, 「실내 디자인에서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지7호, p59, 1996

15) 임승빈,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화사, P142, 1986

공간은 에워쌈의 정도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며, 적당히 에워싸인 공간은 안락하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 공간의 에워싸임은 대부분 벽, 기둥 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바닥 재료의 변화, 질감의 변화, 색채의 변화, 또는 조망의 처리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나. 의미적 요소

장소의 성격이 충분히 체험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란 어떠한 장소의 물리적 구성체계나 혹은 대상물, 행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의미는 장소의 물리적 구조와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있으며 일련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전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장소나 사건의 의미는 체험자의 의도에 의해 한정된다. 본 연구자는 의미적인 측면을 상징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1) 상징적 의미

하나의 장소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주로 그 사회에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 내에 통합된 상징 이념에 대응하는 상징적 구조물을 갖는다.

문화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롯되는 맥락적, 의미가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중에 물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형 시켜 이것을 종교와 예술 그리고 환경으로 표현한다. 인간사고의 본질적 행위는 상징화이며 문화와 예술은 바로 인간이 가진 상징화 능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환경에 행한 여러 물리적 표현은 이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상징을 통하여 주위의 환경과 교섭할 수 있게 되고, 상징은 인간의 진보를 위한 매개물의 역할을 수행한다¹⁶⁾.

(2) 역사적 의미

장소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성격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물리적 구조물의 지속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역사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역사를 느끼게 하는 장소 혹은 건축물은 특별히 체험자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장소의 역사성이란 그 장소가 특정 문화권 혹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경구 뚜렷해진다.

역사적 전통, 역사성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형태는 혁신적 이라기보다는 진화적 형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¹⁷⁾. 이러한 역사적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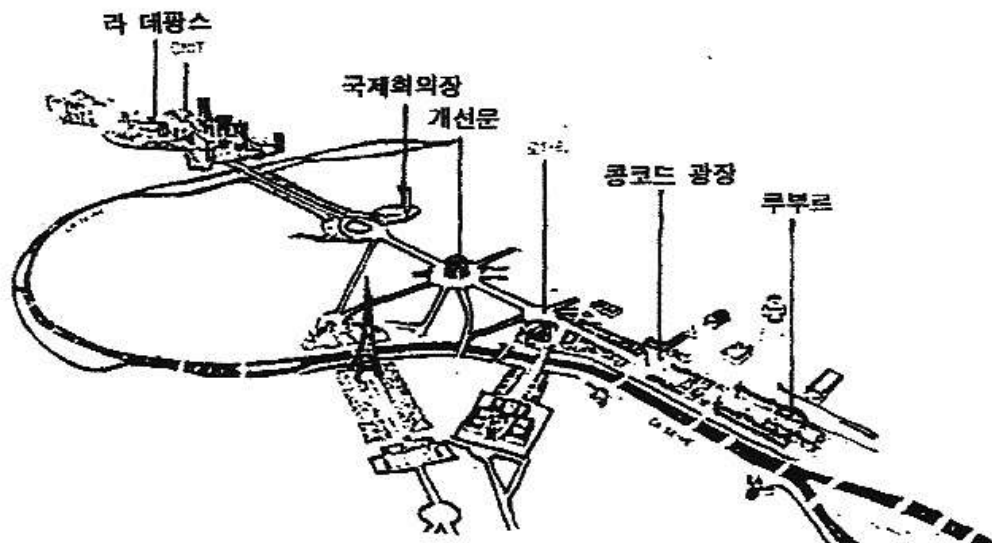
16) 이규목, 「도시와 상징」, 일지사, p1~921, 1988

17) 김경수, 「건축사 및 비평의 과학적 문제에 관한 고찰, 공간」, p85, 1983

것의 반복이 아니라 유추를 통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사의 한 국면에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이며, 거기서 보여 지는 의미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문화적 반응의 행위로서 건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상징성을 회복하고 전통적 컨텍스트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화의 과정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 질 때 가장 긍정적이며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루브르의 미술관의 피라미드는 라테팡스, 개선문, 콩코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형성된 파리의 주된 역사적, 문화적 가로의 축에 놓여 있으며 루브르의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설계자인 I. M. Pei는 대지의 축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파리의 신도시와 역사적인 건물 사이에 피라미드를 놓음으로써 루브르 박물관의 출입과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루브르의 피라미드는 역사·문화의 축제라는 대지의 상징적 성격을 띤다.



〈그림2-7〉 파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로축

(3) 행태적 요소

(가) 이동하는 행위

시간과 공간이 사람과 사건이 집중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간 속에서의 조건은 인간의 활동에 있어 좋은 조건으로서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걷는 장소는 너무 넓지 않고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행자는 포장과 노면의 상태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경로의 선택에 신경을 써서 정해진 주요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싫어한다. 목적지가 보이고 있으면 그들은 곧게 뻗은 길로 향하려고 한다.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곧게 뻗은 경로와 지름길을 좋아한다. 그리고 목적지가 보이는데 돌아가는 길을 강요당하는 것은 더욱 참지 못한다. 굴곡 되어 시야가 닫힌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주며 가로공간과 작은 광장이 서로 나열된 보행자 가로망은 대개 보행거리를 짧게 느끼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작은 공간을 지나서 넓은 공간에 나오면 공간체험을 풍부하게 한다. 또한 경사면에서는 길고 가파른 계단보다는 느슨한 언덕길이 대부분 선호된다.

(나) 멈추는 행위

사람들이 즐겨 발을 멈추는 공간은 공간의 경계에 면한 곳이다. 이는 공간의 모습을 관찰하려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다. 즉, 행동은 구석에서 중앙으로 성장한다.

지붕, 차양, 햇빛가리개가 붙어 있는 건물 앞에서는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주위를 관찰할 수가 있다. 시간을 보내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안쪽, 한구석, 문 옆, 기둥, 나무, 가로등 옆 등 물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선정하여 멈춰 서 있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을 넓히려면 세부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앉는 행위

앉은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 기후, 공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발을 멈추고 서는 것은 우발성이 강한 순간적인 행위이다. 그에 비해 앉는 행위는 더욱 복잡하고 그 만큼 요구되는 조건이 엄격하다. 그러므로 앉는 행위는 대개 “장(場)”의 조건이 좋은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은 멈추는 장소를 선택할 때와 같이 보호받는 좌석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좌석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 장소의 공간과 기능이 특질을 충분히 분석하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하나하나의 벤치나 결상이 그 장소에 적합한 독자적 특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벽의 들어감, 구석진 곳 등 공간 속의 작은 공간에서 친밀성과 안정감을 느끼며, 일반적으로 쾌적한 물리적 “장(場)”을 구비한 장소에 앉을 수 있는 장치를 배치해야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장소로서의 외부공간에서는 행태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물이 좋은 조건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행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장(場)”의 조건이 강화 되어야 하며, “장(場)”의 지원물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의 고유의 특성과 공간의 실제 이용자의 요구와 심리분석이 전제 되어야 한다. 외부 공간에서의 실제로 발생하는 행위는 보다 다양하고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대상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실제로 발생하는 행태를 관찰함으로써 공간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해야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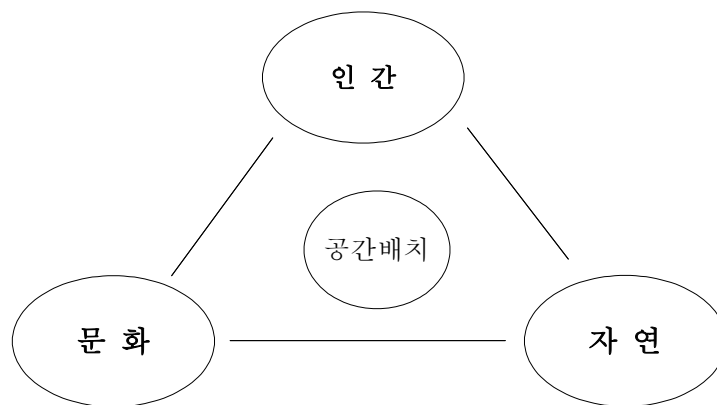
Ⅲ. 강릉단오제의 공간배치

1. 공간계획 및 목표

모든 공간배치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인간이다.

인간은 문화의 콘텐츠를 형성하며, 인간과 사회는 그것을 통해 학습되고 발전된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생태계의 일부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인간을 매개로 하는 문화-인간-자연 이라는 관계성 내에서 서로 상호간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좋은 배치 계획이 된다.



〈그림3-1〉 공간배치와 자연

서양의 조형이 내적 구성 및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적 형태를 추구하였다면, 동양의 조형은 그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美)를 추구하였다.

강릉단오제 공간은 그 이용가치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장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라는 커다란 테마아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간배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징을 통하여 공간의 성격을 부여한다.

두 번째, 상징의 이미지와 상징 언어를 통하여 공간의 의미가 풍부해지며, 이를 미적으로 활용하여 형태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18) 이영주,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47, 1996

세 번째, 전체적으로 통일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되 각 공간마다 각각의 이미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네 번째, 지역사회 주민들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인근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역사적 상징화의 측면에서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에 역사성과 지역성과의 콘텐츠를 분석하여 상징적인 조형물과 향시적인 단오타운의 조성을 계획하고자 한다.

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에 상징적인 조형물과 단오타운의 조성성은 도시의 랜드마크, 강릉단오제의 상징물로 시대적 부응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상징적인 조형물은 역사적 의미에 의한 축의 설정으로 수면공간에 위치하여 화합과 일체감의 공간으로서 조화롭게 조성된 제 3의 공간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심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단오타운의 조성은 개별 공간의 기능이 분명하게 규정되는 공간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통한 집약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2. 대상지 선정

강릉의 지세는 강원도 동부에 있는 영동지방의 중심도시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 뺨은 태백산맥이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으로 가름되어 산맥이 동쪽으로 급격히 내려오면서 원만한 지대로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대관령과 삼당령에서 발원되어 동해에 이르는 남대천을 중심으로¹⁹⁾ 시가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전통 문화의 도시로, 강릉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 되었다.

강릉단오제는 의례, 놀이, 난쟁이 함께 닻새 동안 남대천 강가에서 굿당을 비롯하여 탈놀이판, 농악장, 시름판, 그네장이 서고 거기 온갖 음식과 생활 용품을 파는 단오제가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단오제는 5월 3일부터 닻새 동안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 강가 단오장에서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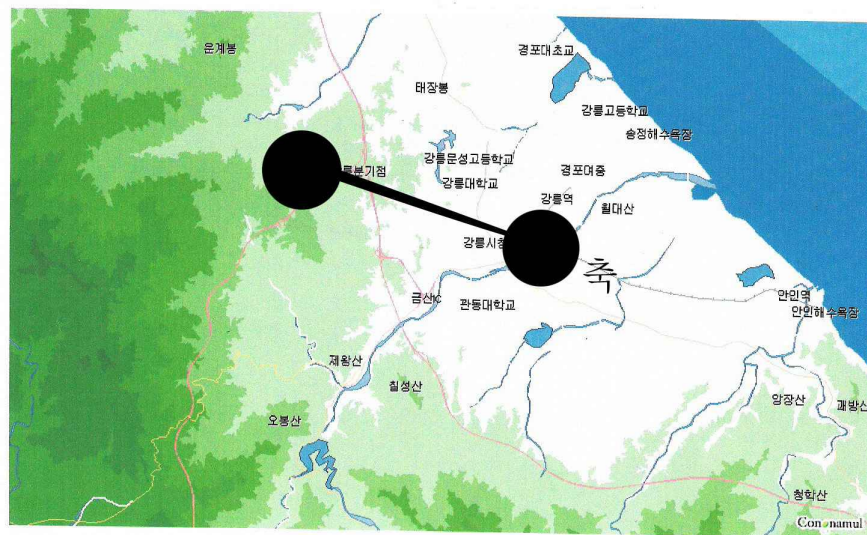
굿당을 비롯하여 탈놀이판, 농악장, 씨름판, 그네장이 서고 거기에 온갖 음식과 생활 용품을 파는 난쟁이 들어서는 임시 공간이다. 여기서 강릉시민들은 일 년에 단 한번

19) 박기열, 「중소도시 가로변의 건축물 외장색 계획에 관한 연구」, p40, 1998

축제의 신명을 즐기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어내고 삶의 활기를 되찾는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민중의 역사와 삶이 녹아 있는 전통축제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근거로 하여 대상지의 선정의 타당성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데 의의를 둔다.



〈그림3-2〉 대상지

3. 위치설정 및 문제점 분석

대상지: 강릉 남대천 단오장

주 소: 강릉시 노암동

강릉단오제가 지금의 남대천 둔지로 공간이 이동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일제강점기에 중단의 위기를 거치면서 강릉단오제 변화의 2기라 할 수 있는 정체성 단계를 맞이한다. 일제에 의한 강릉단오제의 중지는 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난장중심의 단오제를 형성케 하였고, 성황제의 금지에 따라 지역축제의 공간적 위치도 남대천 변으로 옮겨지면서 이후에 대성황사의 소멸과 함께 현재까지 남대천의 장소성을 유지하게 된다²⁰⁾.

그로 인해 지금까지 강릉단오제가 남대천 강가 단오장에서 벌어지게 되었고,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한 면에서 의의가 있어 이 대상지를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강릉단오제 행사공간은 기본적으로 축제기간 5일 동안 연인원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의 소통이 불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0) 김남일, 「지역 개발전략으로서의 지역축제에 생산구조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p111, 2005

또한 폭이 좁고 길이가 넓어 장방형의 공간형태 때문에 방문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일자형(一字形, 피스톤 형)으로 형성되어 행사 전체에 대한 관람이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공간 내에서 시각적 혹은 활동적 포인트로 부각시킬 수 있는 중심부의 선정이 어려워 축제 공간의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3-3〉 대상지 위치

그리고 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축제공간의 구성이나 배치에 있어서 단오제의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단오제의 정체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주제가 단오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스며들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할 때 축제의 정체성 확보할 수 있다. 단오제의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장소의 구성과 디자인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에도 주제가 반영되어 통일성을 갖출 때 단오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오제의 경우 축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또한 단오제에서 행해지는 공연프로 그램의 내용과 무대양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²¹⁾. 단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의 문제점은, 첫 번째 현재 이용자를 위한 시설물이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흥미를 유발하거나 휴식을 위한 장이 마련되지 않고 공간을 한정시키는 요소의 결여로 공간 내에서 정위감을 느낄 수 없다.

21) 김병철, 「강릉단오제의프로그램 및 축제공간 발전전략」, 강원광장, p34~35, 2006

세 번째, 단오제에 사용했던 시설물들이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주변배경과 이질감을 준다.



〈사진3-1〉 대상지의 현황

4. 공간구성

본 대상지는 음력 5월 5일 강릉단오제가 가장 번성하게 닷 새 동안 열리는 공간으로 도입공간, 전통적 문화공간, 단오타운(연희공간, 체험공간, 공연공간A·B, 난장), 삶공간으로 구성한다.

가. 축의설정

구불구불 아흔 아홉 구비 오십리 길을 휘감아 돌아 오르는 위치 놓은 고개가 있는 대관령은 강릉사람 마음의 유일한 고향이고, 하늘에서 가장 가깝고 신성한 그 곳에는 국사서낭님이 좌정해 계셔서 주민들의 삶을, 관장하고 보호해준다고 믿기 중심공간이다. 또한 그로인해 강릉단오제가 대관령과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을 중심으로 단오장이 벌어진다.

대상지와 대관령을 역사적 의미에서 연결하면 축이 형성된다. 본 연구자는 이 축을 대상지의 상징축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축에 위치한 공간은 가장 중요한 전통적 문화공간과 체험공간, 공연공간이 되고, 그 외의 공간은 중심축에 대칭적으로 배치한다.

첫 번째, 진입공간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전, 준비의 단계로 보행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여 내부공간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시키며 동선을 유도한다.

두 번째, 전통적 문화공간으로 전체 공간내에서 가장 높게 위치시켜 중심적인 공간임을 암시하도록 하며, 굿당의 상징물인 호개등에 의미를 두어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수면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수면공간은 육지와 수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화가 된 공간으로 서로 상이한 기능이 존속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²²⁾. 전통적 문화공간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두어 남산교, 내곡교에서 굿 하는 공간이 보이도록 한다.

굿을 하는 1층, 본부를 2층에 배치하였으며, 3층은 수리공간으로 단오장 전체를 볼 수 있으며 강릉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평상시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세 번째,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 외부공간으로, 단오관련공연이나 체험, 놀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오타운이다. 연회, 체험, 난장의 공간과 공연공간A, B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공연공간 내부에서 체험공간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리를 설치한다.

- a. 연회공간은 전통적인 민속놀이 및 이벤트의 공간으로 원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b. 체험공간은 단오관련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 외부. 반 내부의 공간으로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c. 난장은 단오관련 상품 및 휴식의 공간으로 인간의 활동이 집중하는 정도와 친밀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 d. 공연공간A는 단오관련 문화재공연 및 지역문화공간으로 한다.
- e. 공연공간B(단오 문화관)는 단오관련 초청공연이 이루어지 실내공간이다.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항시적인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건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리를 설치해 동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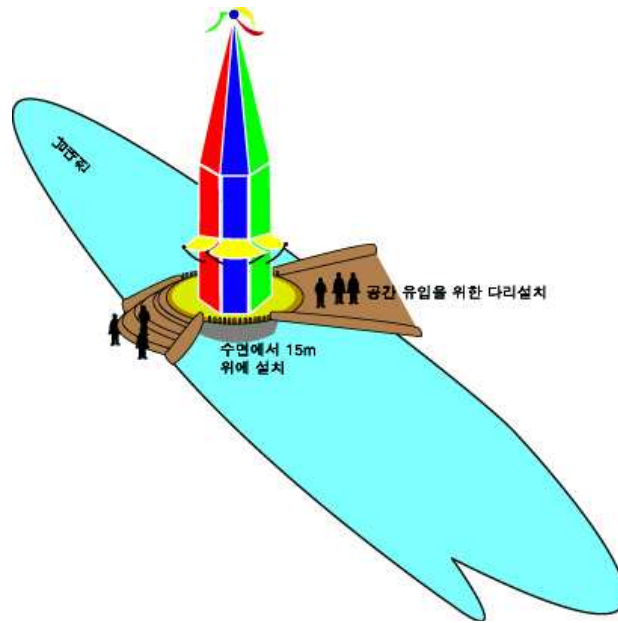
네 번째, 임영관과 칠사당, 성남동 가구 골목을 포함한 공간으로 강릉의 변천사와 강릉인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삶 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다.

22) 김효은, 「도시의 수면 공간 디자인 연구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p6, 2004

- a. 연희공간은 전통적인 민속놀이 및 이벤트의 공간으로 원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b. 체험공간은 단오관련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 외부·반 내부의 공간으로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c. 난장은 단오관련 상품 및 휴식의 공간으로 인간의 활동이 집중하는 정도와 친밀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 d. 공연공간A는 단오관련 문화재공연 및 지역문화공간으로 한다.
 - e. 공연공간B(단오 문화관)는 단오관련 초청공연이 이루어지 실내공간이다.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항시적인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건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리를 설치해 동선을 유도한다.
- 네 번째, 임영관과 칠사당 성남동 가구 골목을 포함한 공간으로 강릉의 변천사와 강릉인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삶 공간으로 숙박이 가능하다. 칠사당은 강릉 단오제 서막인 신주를 빛는 의식이 이뤄지는 유적지다.

필요공간		공간위치	해결방안
진입공간		남산교 입구	외부와 내부의 전이점으로, 단오관련 홍보물을 통해 내부로의 동선을 유도한다.
전통적 문화공간	주제공간(단오제단)-1층	남대천 (세월교와 남산교사이)	전체 공간 내에서 가장 높게 위치시켜 중심적인 공간임을 암시하도록 하며, 두 개의 출입구와 다리를 두어 동선을 유도 하였다. 상징적인 조형물은 호개등의 이미지로 설치한다.
	본부-2층		
	수리공간(전망대)-3층		
단오 타운	연회공간	단오장 터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으로, 공연공간B(단오문화관)에서 체험공간으로의 동선을 유도하기위해 다리를 설치한다.
	체험공간	단오장 터	
	난장	단오장 터	
	공연공간A		
	공연공간B(단오 문화관)	단오장 터	
삶공간		임영관,칠사당을 포함한 성남동 (가구골목포함)	강릉의 변천사와 강릉인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공간 보존을 유지한다.

〈표3-2〉 공간배치 및 해결방안



〈그림3-8〉 중심공간의 해결방안

두 개(주출입구, 출입구)의 출입구를 두어 동선을 유도 하였으며, 출입구의 경우 남산교와 높이를 같이하도록 다리를 놓아 공간유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상징적인 조형물의 형태로는 원, 별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로 화합과 일체감을 가지고 평화로운 양상을 띤다. 원, 곡선은 관중의 참가를 유도하는 형태이며 특히, 중앙의 모양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공간 뿐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그림3-9〉 중심공간의 평면도

곳을 하는 1층, 본부를 2층에 배치하였으며, 3층은 수리공간으로 단오장 천체를 볼 수 있으며, 강릉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평상시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IV. 결론

공간개념은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인간의 신체와 삶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언어” 수준에서 시작 되었는데, 그러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와 상징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대에 와서 새로운 공간개념의 근간을 형성해 주고 있다. 시간의 지층만큼이나 오래된 공간의 사유와 인식, 동서양의 철학적 이해는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배치를 이해하기 위한 근원적인 배경으로 공간의 개념과 공간의 특성을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선정 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하는데 물리적 요소, 의미적 요소, 행태적 요소로 분석하여 공간배치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을 역사적 의미에 의한 축의 설정과 공간 배치,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굿이 이루어지는 굿당을 상징적인 형태로 평면도출하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뜻 깊게 인식되도록 “상징적인 조형물”을 제시하여 중심부로 설정하였으며,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항시적인 단오타운 조성으로 연희공간과 체험공간, 단오관련 공연공간, 난장으로 구성해 나가고자하였다.

상징적 조형물은 전통적 문화공간으로 전체 공간내에서 가장 높게 위치시켜 중심적인 공간임을 암시하도록 하며, 굿당의 상징물인 호개등에 의미를 두어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수면공간에 위치하였다. 수면공간은 육지와 수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화가 된 공간으로 서로 상이한 기능이 존속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통적 문화공간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수면으로부터 높이를 두어 남산교, 내곡교에서 굿 하는 공간이 보이도록 한다. 참여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를 두 개(주출입구, 출입구)두어 공간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굿을 하는 1층, 본부를 2층에 배치하였으며, 3층은 수리공간으로 단오장 천체를 볼 수 있으며 강릉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평상시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단오타운은 이용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 외부공간으로, 단오관련공연이나 체험, 놀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과 공간사이 다리를 설치해 동선을 유도한다.

- a. 연희공간은 전통적인 민속놀이 및 이벤트의 공간으로 원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보조기구를 설치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b. 체험공간은 단오관련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 외부·반 내부의 공간으로 공간의 영역성을 확실하게 한다.
- c. 난장은 단오관련 상품 및 휴식의 공간으로 인간의 활동이 집중하는 정도와 친밀

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d. 공연공간A는 단오관련 문화재공연 및 지역문화공간으로 한다.

e. 공연공간B(단오 문화관)는 단오관련 초청공연이 이루어지 실내공간이다. 일반인들이 단오 역사를 이해하고, 변천사를 관람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항시적인 전시공간으로 구성한다. 건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리를 설치해 동선을 유도한다.

현지조사와 공간배치 과정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인간은 문화의 콘텐츠를 형성하며, 인간과 사회는 그것을 통해 학습되고 발전된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생태계의 일부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인간을 매개로 하는 문화-인간-자연 이라는 관계성 내에서 서로 상호간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좋은 배치 계획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인간이 공간 내에서 물리적 장치와 형태는 인간의 기능 영역 내에서 인간의 정위를 구성하며, 물리적 장치와 의미는 자연이나 도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감적인 경험을, 그리고 형태와 의미는 공유된 역사성을 결합 시킨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요소들의 결합이 공간배치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세 번째,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진행된 공간배치의 연구로 본 연구는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공간을 역사성과 지역성과의 콘텐츠를 반영한 문화적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진행된 공간배치의 연구로 도시의 랜드마크, 강릉단오제의 상징물로 시대적 부응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창조적인 공간배치를 위한 창조적인 방법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V. 참고문헌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 국제, 2001
김봉렬, 「불교적 건축이론 :통도사」, 이상건축, 1996
이규목, 「도시와 상징」, 일지사, 1988
이-푸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 대운, 1995
임승빈,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화사, 1986
C.N.Schulz,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 문화사, 1994
C.N.Schulz,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정영수, 윤재희 역, 세진사, 1984
Herbert Read, 「 the Art of Sculpture」, Princeton Unive Press, 1990

-정기 간행물-

- 김경수, 「건축사 및 비평의 과학적 문제에 관한 고찰」, 1983
김병철, 「강릉단오제의프로그램 및 축제공간 발전전략」, 강원광장, 2006
류호창, 「실내 디자인에서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지
7호, 1996
박기열, 「중소도시 가로변의 건축물 외장색 계획에 관한 연구」, 1998

-논문-

- 김성호, 「현대구상조각의 한국성 모색에 관한 연구-인체탐구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효은, 「도시의 수변 공간 디자인 연구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이영주,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조희철,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Arrangement of Gangneung Danoje Festival

choi mi ja

Department of Fine Art Graduate School

Kangneu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ok 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ime-honored Gangneung Danoje Festival, which was highly regarded as part of cultural heritage, in terms of spac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pace-related arts, not from that of history or folklore.

The concept of space has started with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as a sort of fundamental language that represents the body and essential life of man. The metaphor and symbol of it as a kind of language has still remained unchanged, which has paved the way for creating a new concept of it. Meditation on space and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it in the West and Asia, which are as long as the history of time, are now reinterpreted from a modernistic standpoint, and its meaning is consequently being extended.

This study aimed to take a three-dimensional approach toward the space moulding of Gangneung Danoje Festival, not a two-dimensional one that just focused on the decoration of the interior walls, ceilings and floors of a building. Specifically, it's attempted to select the pivotal space of that festival based on its historical meaning, to make a spatial arrangement of it, to draw

up a symbolic plane figure of a performing space of exorcism, the core of that festival, and to present a symbolic molding as a central part of the place that could make that place more memorable and impressive.

Moreover, 'Dano Town' was planned to be created, which would consist of different places for banquet, experience, performance and open-air market.

As for performance spaces, two different sorts of performance spaces that were respectively named Space A and Space B were presented. The Performance Space B that was selected as a Dano Culture Hall was divided into two segments again. One was a place for a permanent exhibition of the history of Dano, where visitors could learn and be educated about it, and performance related to Dano could be held in the other place.

The spaces for banquet, experience and open-air market and the performance spaces would organically be linked to one another by installing bridges, but each of them would feature a particular and unique theme of its own.

The symbolic molding was placed in a space between Seweolgyo and Namsangyo to attract viewers, and there were two different entrances to it, including a main one, in order to ensure easier accessibility. This symbolic molding involved round and star-shaped geometrical patterns, being designed to look peaceful and to convey the images of harmony and unity. The circles and curves intended to urge the participation of viewers, and the central circle would function as the center of the molding and as a link coupling its spaces at the same time.

As a matter of fact, the space where Gangneung Danoje Festival was held wasn't considered worthwhile, though it was actually of great use. So this study planned to make a systematic and simplified spacial arrangement of it in light of its historical and local value and to suggest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it.

The 'symbolic molding' and 'Dano Town' that were presented in the study as what could constitute the space for Danoje Festival are expected to make it possible to comply with the fashion of the day, as it could serve as a unique landmark of the city where that festival is held, as a symbol of the festival itself and as a good example that proves the importance of spatial arrangement.